

应当推行“助食筷”和“取食筷”并用的中餐分食制

中国食文化研究会饮食文化研究所
杭州商学院中国饮食文化研究所 赵荣光

在 SARS 肆虐和全民奋力抗非典的过程中，整个民族经受了非常的精神洗礼，破除不科学、不文明生活陋习，养成科学文明健康生活习惯已成为公众普遍而强烈的愿望。其间，中国科协发起全社会开展的旨在“除陋习树新风”的活动结果表明：“混用餐具同饮食”已经理所当然地被列为公民大众“我最深恶痛绝的生活陋习”之一。

美国营养学家霍尔曼博士在对中国与西方的进餐方式做了长时间比较研究之后，认为中国传统的进餐方式有五大缺点。其中之一是：中国人吃饭没有分餐习惯，容易互相传染疾病。说中国人没有分餐习惯，那是中世纪以后的事情。事实上，中国人聚餐共食的进食方式大约形成于 9—11 世纪时期。在此之前，中国人无论是公宴还是平居饮食，基本都是各行其是的分餐——中餐分食制。由于大台面高足桌椅（相对于既往的案）的进入人们食生活领域和人口增多、食品的不宜分配等原因，聚餐共食便逐渐演化成了中国人基本的进食方式。说基本，而不说全部或绝对，是因为分餐方式在聚餐共食成为中国人基本进食方式之后仍然一直在一些场合存在着。如自三代期一直延续到清帝国的宫廷礼食，如官场或世俗特殊场合的“专桌”（又称专席）等皆是。更不要说我国早就流行的盒饭、份饭等各种便餐以及机关企事业单位的食堂日常就餐，本来就不是合食的。也就是说，独自进食同样是中国人主要的进食方式之一。长时间以来，自助餐、快餐等西餐文化更极有力地推助了中餐进食方式的变化。事实上，很早以来，在许多宴会场合中餐分食已经在实行了。

关于中餐进食方式的分与合，讨论和争议可谓由来已久。长时间以来，一些餐饮界中人囿于中国烹饪至善至美的偏见，认为中国饮食文化的一切都是无可挑剔因而是只能“弘扬”的。传统的聚餐共食方式，就被一些人认为是不能改变的国粹。有的方外名家还撰文侈谈中国式聚餐共食代表了“团结和谐、亲善礼让”，体现了“集体主义、公众利益”，是中国传统哲学的至高境界“和”的体现云云。他们还进而批评西餐进食方式是“个人主义”、“个人利益”等等。中国传统的聚餐共食方式主要是用于某些公众聚宴和家庭饮食场合。后者可以另当别论或暂且勿论，事实上争议的焦点主要是公众聚宴场合。我们知道，作为一定人群生活式样的文化一旦积久成习，就成了“风俗”、“传统”，就产生了亲切感，具有了亲和力，于是人们便默认呵护，轻易不会反省扬弃。我们也知道，日本人是一向以筷子文化自豪的，但他们却一向以分餐为是。著名食文化学者石毛直道先生曾尖锐而深刻地批评许多人用筷子在一个公用餐具里反复取食的现象是：“有类共交”！中国古代食圣袁枚更早就愤慨地抨击那种在公宴场合用己箸夹食执意敬人的行为是：“有类强奸”！袁枚还对许多人在一个锅里涮来涮去的“火锅”食法表示异议，认为应当“戒”去。然而，古圣时贤的警言妙喻似乎并不足以引起我们的兴趣。某位烹饪教授就曾以大众习惯无数双筷子在一个锅里搅来搅去，而愚妄地撰文批判袁枚的上述观点。然而，SARS 事件的严重教训，却使既往无数文人趣谈、食客调侃、业者标榜和无知者的愚昧所筑起的“文化”壁垒顷刻土崩瓦解。科学是无往不胜的，文明也定能征服人心，生命安全的本能需要胜过任何文化意义的方式选择。SARS 事件以来，从北京到全国许多省区的众多媒体积极讨论；餐饮行业的各种、各级组织和饮食文化学术团体，相继表达了各自的意见；它们反映了一个基本事实，代表了一种基本趋势，那就是：中国人开始反思自己传统的聚餐共食方式，分餐制——中餐分食制——势在必行。

这里，我们称为“中餐分食制”，是为了避免造成混淆。因为，照时下一些讨论者的理解，一提分餐就落入西餐的分餐模式。其实，中式分餐与西式分餐有着很大的不同。首先，中餐的代表性助食具——筷子就不会换成其它工具；其次，中国传统的膳品与传统的烹调方法不会根本改变；再次，中国人历久形成的民族饮食心理习惯将会在更新发展中继续存在。这三个基本支点，或曰三元要素的继续存在，无疑将不可避免地决定“中餐分食制”只能是中华民族式的。

笔者近日获悉，目前国家级的食文化学术团体正在着手进行中餐进食方式改革方案的研究，中餐进食方式改革已经开始进入了前所未有的历史阶段。依笔者管见，“中餐进食方式改革”的技术层面并不是一道难以越过的高栏，说“改革”也似乎有些过于郑重其事、张大其词，或许称作“改变”更为准确。因为改变的核心或重点，仅仅是不再“有类共交”而已！如果尽可能简单化的思考问题，全部问题的根本解决就在于与时俱进地用好中国人发明和巧妙地用了六千年之久的筷子。当然，实践过程可能会复杂得多。例如，早已经开始实行了的公筷制就有没能普遍推广开来。公筷的形制色泽应当迥异于每位就餐者手中的私筷，数量不必限定只是一双，可以是随每道菜品同时上桌。但公筷也有其局限性，因为有些中式菜肴风味或风格的特异性决定公筷轮流使用并不适宜，如：拔丝类菜肴时限性很强，聚餐者（多时可达一桌 12 人）若依次轮流等待使用一双公筷显然不妥；有些菜品浆汁较厚，公筷一经用过之后难免留下痕迹，继用者心理会不舒服。因此，笔者以为，“中餐分食制”可以实行“助食筷”、“取食筷”并用的原则。即公众聚餐场合，每位就餐者面前配置“助食筷”、“取食筷”各一，助食筷是就餐者进食用的，取食筷则是“公筷”的分解——分解成每人一双。取食筷只用于将公共器皿中的食物取到个人面前的食碟中，进食则用助食筷。也可以形象生动地说，我们主张的“中餐分食制”就是变一双筷子吃饭的传统为“两双筷子吃饭”的范式，简约地说则是：“一人两筷”。“助食筷”、“取食筷”应当是形制色泽迥异，两种筷子的筷枕（俗称筷架）也应当明显有别。“助食筷”、“取食筷”的摆放位置，应当是“助食筷”靠内、“取食筷”靠外，即“助食筷”更挨近食碟等个人餐具，这些应当成为规范，以便于推行和接受。与此相应的，是私用调羹的配置，这并不困难，因为现在的公宴场合都置有个人用的调羹。必要的时候（如过于盛大冗长的宴会）“助食筷”、“取食筷”可以连同每个人的餐具在宴程进行到一定阶段时更换。一桌宴席进行中间的餐具全面更换，中国饮食史上叫作“翻台”，一般是用于规模较大因而膳品较多、宴程较长的场合。中国人长时间习惯了只用一双筷子夹来戳去，开始实行“助食筷”、“取食筷”并用制可能会有一个逐渐适应的过程，也许还会遇到一定阻力。但任何新生事物的成长都不可能是一帆风顺的，都需要智者为其前驱，今天更需要政府和社会力量为之张目，大力推助。大众积习阻力只能积极引导和慢慢克服，而那种仍抱定中国烹饪“三神”因而拒绝任何改革的有害偏见则应当予以澄清。17 世纪中叶，清军用极其残酷的屠杀手段改变了汉族人视为大礼、保持了几千年的发式传统，20 世纪初的大革命则如快刀斩乱麻几乎一夜之间去掉了所有中国男人脑后的 Tail。两次辫发革命都遇到了巨大阻力，无数人为之付出了生命的代价，文化观念的冲突异常尖锐，“习惯”、“传统”、“国粹”一类口号也曾被抵制者用为理由。如此看来，“中餐分食制”的变革，也不过就是青萍之末的微风涟漪而已，而一旦蔚成新风，则民族将受益无穷。

附：赵荣光情况简介

赵荣光，男，1948 年 8 月 14 日生于黑龙江省齐齐哈尔市，祖籍山东省历城（今济南市）相继毕业于齐齐哈尔大学中文系和哈尔滨师范大学历史系，现为杭州商学院中国饮食文化研究所所长、

旅游管理学院教授。同时任中国食文化研究会(国家一级)常务理事、学术研究部负责人、饮食文化研究所所长、北京中国饮食文化研究会常务理事、《饮食文化研究》杂志(香港)编委会主任、黑龙江餐旅学院名誉院长、全国多所大学客座教授。享受国务院政府特殊津贴(93·3210071)

研究领域和主要学术成果:

主要从事中国文化史教学与研究,侧重中国饮食史与饮食文化,研究工作已近三十年。是中国大陆饮食文化、饮食史学科的开拓者。先后讲授过中国饮食文化、中国饮食史、中国饮食文化典籍、中国饮食民俗学、民俗学、旅游文化等课程。

主要著述有:

- | | |
|---------------------------|------------------|
| 《天下第一家衍圣公府饮食生活》 | 黑龙江科学技术出版社 1989 |
| 《中国饮食史论》 | 黑龙江科学技术出版社 1990 |
| 《天下第一家衍圣公府食单》 | 黑龙江科学技术出版社 1992 |
| 《赵荣光食文化论集》 | 黑龙江人民出版社 1995 |
| 《满族食文化变迁与满汉全席问题研究》 | 黑龙江人民出版社 1996 |
| 《中国古代庶民饮食生活》 | 台湾商务印书馆 1998 |
| 《饮食文化概论》 | 中国轻工业出版社 2000 |
| 《满汉全席源流考述》(季羨林主编《东方文化集成》) | 昆仑出版社 2003.4 |
| 《中国旅游文化》(共著) | 东北财经大学出版社 2003.2 |
| 《中国饮食文化概论》 | 中国高等教育出版社 2003.6 |
| 《中国饮食文化研究》 | 东方美食出版社 2003.6 |

译著三本:

- | | |
|---------------|-----------------|
| 英·《清代饮食》 | 黑龙江省商业经济学会 1984 |
| 日·石毛直道《饮食文明论》 | 黑龙江科学技术出版社 1992 |
| 英·《美国高层建筑》 | 黑龙江科学技术出版社 1993 |

主编:

- | | |
|-----------------------|------------------|
| 《高等烹饪教育教材》系列 20 种 | 中国轻工业出版社 2000 |
| 《高等烹饪教育教材》(精品)系列 10 种 | 中国高等教育出版社 2003.6 |

论文约百篇,主要者有:

- | | |
|------------------------------------|---|
| 《青楼与中国古代饮食文化》 | 1990年10月成都“中国社会史第三次研讨会”论文 |
| 《黑龙江地区饮食文化浅谈》 | 1991年哈尔滨《首届黑龙江省烹饪学术研讨会论文精选》 |
| 《中国寒冷地区饮食文化的历史地位与前途》 | 1992年3月长冈《世界多雪国家21世纪发展学术研讨会论文》 |
| 《中国历史上人群自噬现象述论》 | 1992年9月沈阳“中国社会史第四届研讨会”论文 |
| 《来自中国的食文化报告》 | 汉城《韩国食生活文化学会韩中日报告特集》1993·6 |
| 《中国食文化研究事情》 | 东京《VESTA》季刊第18号平成6年(1994)1月1日 |
| 《中国古代食圣袁枚美食实践暨饮食思想述论》(《中国烹饪走向新世纪》) | 经济出版社 1994年10月 |
| 《“满汉全席”名实考辨》 | 《历史研究》1995·3 |
| 《中国古代饮食文化十美风格》 | 台北《联合文学》第141号1996年7月号 |
| 《大豆在中国膳食结构中的地位与中国菽文化》 | 1996年10月哈尔滨“第三届中日动脉硬化血症血栓症一级预防国际学术研讨会”特别演讲稿 |
| 《关于箸与中华民族文化传统的思考》 | 香港《饮食文化研究》2001.1 |
| 《中国餐饮新热点:“杭州菜”热情的分析与思考》 | 香港《饮食文化研究》2001.1 |
| 《中国传统酒人形象的历史异变》 | 香港《饮食文化研究》2002.1 |
| 《19世纪中叶前后西方人对中国箸文化的两种不同认识及其思考》 | 香港《饮食文化研究》2002.2 |

《宋徽宗与宋茶道文化精神关系初探》 香港《饮食文化研究》2002.2

《关于箸文化研究的若干问题》 《韩国食生活文化学会志》第17卷第3号 2002年7月

《孔孟食道及其在中国饮食文化史上的地位》 《韩国食生活文化学会志》第17卷第4号
2002年10月

《十三世纪以来长江下游地区饮食文化风格与历史演变特征论述》 吴文希主编《中华历史文化与餐旅初论——海峡两岸餐旅学术研讨会论文集》台湾观光经营管理专科学校发行 2002年12月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음식을 담는 젓가락” “음식을 먹는 젓가락” 병용의 중찬분식제

조영광 (함주상학원 중국음식문화연구소) 著

김상연 (중국북경대학) 譯

사스가 기성을 부리고 전국민이 온 힘을 다해 그에 저항하는 과정 중 온 국민은 매우 큰 정신적 시련을 경험했으며, 그 과정에서 비과학적/비문명적 요소를 타파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과학적이며 문명적인 생활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대중 국민들을 사로잡게 되었다.

이 과정 중 중국 과학발전기(과학협력발전기구)는 낡은 풍습을 없애고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자는 취지로 행동강령을 표명했다. 미국의 영양학자 霍爾曼(hu re man)박사는 중국과 서양의 식생활방식에 대한 장기간의 비교연구 끝에 중국의 식생활방식의 5가지 취약점을 발견했다. 그 중 하나는 중국인들의 경우 음식을 각자 개인이 먹는 습관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사실은 질병을 서로에게 옮기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다같이 먹는 것은 중세기 이후부터의 문화의 흐름이었다. 사실상 이렇게 함께 모여 같이 먹는 이런 식생활 방식은 대략 9-11세기에 형성되었다. 이전의 중국인들은 외부 사람들을 초대하여 식사를 하거나 가정에서 일반적인 식사를 하거나 기본적으로 모두 개인적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가 식생활영역이 넓어지고 인구 증가추세로 진입하면서 음식을 각자 따로 섭취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됨으로써 공동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식생활방식으로 점차 변화하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위에 설명한 내용은 기본적인 사실이며 전체적인 식생활문화의 흐름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음식을 같이 먹는 식습관이 기본적인 식생활방식이 되었다더라도 여전히 각자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고수하는 집단과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청(淸)제국 시대의 경우 3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궁전의식을 고수하였는데 궁궐 등 공적인 장소이거나 아니면 세속(일반국민이 생활을 영유하는)의 특수한 장소이거나 황제에게 특별하게 받쳐지는 傳席라는 것이 존재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엔 오래 전부터 도시락문화가 존재하였고, 음식물을 나눠 담는 등 각종 간편한 음식 및 기관과 기업단위의 구내식당에서의 식문화가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보면 합식(合食)문화가 아닌 독립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중국인의 식문화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오랜 시간이 지나오면서 뷔페 및 패스트푸드 등의 서양 식문화가 중국 식문화방식의 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사실상 아주 오래 전부터 많은 연회장소에서 음식을 각각 따로 먹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음식의 문화가 분(分)이나 아니면 합(合)이나 라는 논의에 관한 토론과 논쟁은 아주 유래가 깊다고 말할 수 있다. 오랫동안 일부 식품학계의 인사들은 중국의 음식에 대해 너무나도 완벽하다는 편견이 있으며 중국의 음식문화의 모든 것이 전혀 단점이 없는 완벽한 무엇이라고 여기고 있다. 전통적으로 함께 모여서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또한 함께 먹는 식문화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변할 수 없는 중국만의 고유한 문화정화라고도 여긴다. 또 다른 어떠한 인사들은 함께 모여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또한 함께 먹는 식문화는 “ 단결하고 화합하는 것, 친선적이며 예를 갖춰 양보하는 것” 을 의미한다고 큰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 집단주의, 공공이익” 의 의미를 갖는 높은 경지의 중국철학의 “ 화(和) ” 를 구현하는 것이라 말한다. 또한 이들은 더 나아가 서양의 식문화를 “ 개인주의 ” “ 개인이익 ” 이라고 비평하고 있다.

중국의 전통 식문화인 함께 모여 음식을 먹는(聚餐共食-회식) 주요한 두가지 방식은 외부의 공공 장소와 가정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후자에 해당하는 가정내의 식문화의 경우 별다른 논의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사실상 주요 쟁점은 전자에 해당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식문화일 것이다. 우리는 한 인류의 생활양식의 문화가 오랜 기간 쌓이고 축적되어 “풍속” 과 “전통” 이 되며 그것이 친절감과 친화력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또한 일본인들이 젓가락 문화를 자랑으로 여기고 그들은 분찬(음식물을 나누는 것) 또한 즐긴다고 여기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저명한 음식문화학자 石毛直道선생은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식사자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식기내부를 여러 사람이 반복적으로 젓가락을 사용한다는 것은 일종의 공교(共交)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고대의 식문화의 경우 더욱 비평의 강도를 높여 일종의 강간(強奸)이라고 까지 말했다. 또한 중국인들의 문화 중 하나인 하나의 식기에 반복적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신선로문화에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경계를 하여야 한다고 여겼다. 하지만 당시의 덕망 높은 인물들의 이러한 의견들은 우리들의 주위를 환기시키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스가 가져온 엄청난 교훈으로 인해 많은 지식인들이 이러저러한 교훈에 대해 활발한 의견교환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제까지 공공연하게 인정 받았던 상식과 무지한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의 성벽은 순식간에 산산히 부서지고 말았다. 과학적인 사고가 최우선순위가 되었으며, 문명의식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잡았고, 생명안전에 대한 본능의 필요성이 어떤 문화의식보다 앞서 고려되고 선택되게 되었다. 사스여파 이후 북경을 비롯하여 전국의 성의 여러 단체 및 기관들은 식문화 및 이에 관련한 토론에 매우 적극적으로 되었다. 음식업에 종사하는 각급단위와 조직 그리고 학술 단체들에 의한 의견 및 주장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의견들은 하나의 기본사실을 반영한 것이며, 기본경향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으로 식사를 하는 전통적인 중국의 식문화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다. 이 사고의 전환의 결과는 분식제(分餐制)라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혼돈을 피하기 위해 위에 언급한 분식제를 중국식 분식제라 칭하도록 한다. 그 이유는 중국식 분식제와 서양식 분식제에 관한 혼돈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식 분찬(分餐)과 서양식 분찬(分餐)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구별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중식 식생활의 대표적인 보조 수단인 젓가락이라는 사실이다.(실제로 중국 식생활에서 젓가락은 기타 다른 보조수단으로 대체되기 어렵다.) 두번째로는 중국 식기구와 중국요리의 조리법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인들이 오랫동안 본래 가지고 있는 음식에 대한 습관과 생각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그들이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위에 언급한 기본적인 3가지 사실때문에 “중국분식제”는 중국인들만의 독특한 중화(中華)민족식이 될 수 밖에 없다.

필자는 현재 국가급 식문화 학술단체에 의해 중국 식생활문화의 개혁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내용이 현재까지는 볼 수 없었던 미증유의 역사적 단계를 밟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중국 식생활방식의 개혁”은 결코 기술적인 측면에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개혁”이라는 의미가 마치 아주 평강하고 신중해야 하는 거사로 확대 해석 되는 것이 문제이다. 필자의 의견은 “개혁”이라는 단어보다는 “변화”라고 칭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변화의 핵심과 중점은 단지 다시 “공교(共交)-함께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만약 문제를 푸는 생각의 단계를 가능한 단순화한 후 결론을 낸다면 전체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의 키포인트는 중국인들이 발명하여 6천년이상 사용해온 젓가락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물론 이렇게 문제의 핵심을 단순화한 후 일련의 과정을 실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예컨대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용 젓가락 사용제 같은 경우에도 널리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 공동 젓가락 사용의 형

식이 식사를 하는 사람들 각자의 개인용 젓가락 사용의 형식과 판이하게 다르며, 수량 또한 한정적으로 한쌍이라는 점이다. 또한 상위에는 각각의 반찬들이 동시에 올라온다. 하지만 공용의 젓가락 역시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식 요리의 독특한 맛과 특징에 있어 공용 젓가락을 순번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마, 연뿌리, 사과 등에 뜨거운 엿, 꿀, 설탕을 묻혀 만든 요리와 생선, 육류 요리에는 공용 젓가락은 한계성을 드러내게 되며, 회식(12명이 한 테이블에 앉아)의 경우 순서에 따라 식사를 할 때 사용하는 한쌍의 공용 젓가락의 경우 매우 부적당하다. 일부의 음식은 액체(즙)의 농도가 비교적 짙기 때문에 한번 공용 젓가락으로 사용한 후에는 그대로 흔적이 남기 때문에 다음 사용자는 기분이 좋지 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 생각에는 “중국분식제”에는 “음식을 먹는 각자의 젓가락” “음식을 담을 때 사용하는 젓가락”이 각각 하나씩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자는 각자가 음식을 개인적으로 먹을 때 사용하고 후자는 “공용 젓가락”으로 분리하여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음식을 담은 젓가락”은 단지 공용그릇에 있는 음식을 개인용 접시에 담은 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개인의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중찬분식제”의 한쌍의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는(자신의 젓가락으로 공동의 음식그릇에서 음식을 담고 그에 사용한 젓가락으로 담은 음식을 먹는)전통에서 “두종류의 젓가락을 이용해서 음식을 먹는” 문화로 변화해야 한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한사람에 두쌍의 젓가락”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양종의 젓가락은 명백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 “각자 음식을 먹는 개인용 젓가락” “음식을 공동으로 담는 공용 젓가락”의 위치의 구별이 있어야 한다. 전자의 경우 안(內)에 있어야 하며 후자의 겨우 밖(外)에 위치하여야 한다. 즉 전자의 경우 개인의 식기에 가까이 놓이게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규칙들이 당연히 형성되어야 하며 추진되고 받아 드려져야 한다.

이러한 규칙들은 아주 당연한 것이며 개인용 국그릇이 배치가 되어야 하며 이것은 결코 곤란한 문제가 아니다. 그 이유는 현재 공공장소(음식점 등)에서 이미 개인용 국그릇이 있기 때문이며 “개인용젓가락” “공용 젓가락”이 식사가 준비되는 테이블에 개인적 식기로 바뀌는 일련의 과정만 거치면 되기 때문이다. 연회석이 준비되는 중간과정에 식기들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중국의 음식문화에 있어 음식물의 종류가 많고 오랜 시간 준비가 필요한 것이 특징이었고 오랜 시간 동안 한쌍의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변화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제부터 두종류의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는 것에 익숙해 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순풍에 돛 달듯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사회의 지식인들이 앞장서야 하고 오늘부터라도 정부와 사회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역량을 모아 전략적으로 상기 방안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만이 대중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나, 둘씩 장애요소가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7세기 청나라시대, 20세기의 대혁명에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었다. 두번의 혁명과 시대의 오류로 인해 우리는 커다란 성장에 대한 장애의 시간을 경험한적이 있다. 이제 더 이상 “습관” “전통” “민족의 고유한 문화의 정화”를 내세워 성장을 가로막는 배척자들의 궁색한 이유를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찬분식제”의 변혁을 예를 들자면 새로운 변화의 물결로 받아 드려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야 할것이다.